

# ‘나주시政’ 고소·고발에 몸살

### 3년 새 25건·공무원 60여명 조사 받아 고질적 지역내 갈등...원로들이 나서야

나주시장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이 난무하면서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정 발목잡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정훈 나주시장과 관련된 고소·고발 건은 최근 나주경찰서에 접수된 2건의 고발장을 포함, 지난 3년간 모두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동안 구속을 포함해 60여명의 나주시청 공무원이 사건에 연루되는 등 시정 수행에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나주경찰은 추가 접수된 2건의 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 대상 공무원이 12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고소·고발사건이 난무하게 된 원인에 대해 민선자치 실시 이후 계속돼 온 지역내 갈등을 꼽았다. 또 나주시가 명쾌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스스로 발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잇따른 고소·고발사건으로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위촉돼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시민 김모(48·나주시 송월동)씨는 “농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맡은 관계 공무원들의 몸사리가 현실화되면서 제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사건을 중재해야 할 지역 원로들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는 여론도 높다.

나주경찰의 한 간부는 “이 지경까지 온데는 지역 원로들이 팔짱만 낀 채 침묵으로 일관해 온 원인이 크다”며 “갈등을 중재할 책임자를 의부에서라도 영입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다”며 안타까워 했다.

나주=정철환기자 chjung@

## 나주 영산강변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1만명 수용 규모 공설운동장·국민체육센터 등 들어서

영산강변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

나주시는 750억원을 들여 송월동 영산강변 일대 18만여㎡에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조감도), 인라인롤러경기장, 선수합숙소 등 종합스포츠 타운을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스포츠 타운에는 정식 육상경기 등이 가능한 1만명 수용규모의 공설운동장과 200m 트랙 규모의 인라인롤러경기장이 들어선다.

수영과 다이빙이 가능하고 배구와 농구 등 다양한 구기종목의 경기를 열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100

명의 선수를 동시에 수용하고 이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와줄 웨이트트레이닝센터도 건립된다.

스포츠 타운 내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와 테니스장 등이 들어서 체육동호인과 시민들의 체육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250억원이 투입될 국민체육센터 등은 1만3천여㎡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져 수영장과 각종 구기 종목의 경기장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의 행사 장소 등으로도 개방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스포츠 타운이 조성되면 상시 전지훈련팀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변변한 공설운동장 하나 없었던 안타까움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영광원전 배수로 ‘물 반 고기 반’



지난 2006년 조성된 영광 원전 댐터에 송어 등 각종 물고기가 넘쳐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강태공들이 몰려오고 있다. 영광원전은 주말과 공휴일에 일반인들에게도 댐터에 개방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댐터대회 ‘강태공’들 300여명 몰려 주말·휴일 개방 “배수로는 송어 밭”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부지 내에서 댐터가 가능한 영광원전 댐터 배수로 댐터가 인기 끌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원전 댐터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강태공’들이 참가했다.

영광원전 배수로 댐터는 송어와 돔, 농어, 장어 등의 물고기가 주

로 몰려 ‘물 반 고기 반’인 곳으로 유명하다. 이는 원전에서 대위된 냉각수가 배출돼 주위 바닷물보다 온도가 7도 가량 높기 때문이다.

영광 원전은 원전 안전성을 알리고 지역 수산물 홍보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여로 행위가 가능하도록 댐터를 조성했다.

이번 대회에서 79cm짜리 송어를

낚아 ‘대어상’을 받은 김남수(63)씨는 “소문을 듣고 대회에 참가했는데 배수로 전역이 송어 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말했다.

영광 원전 관계자는 “휴어기인 5~9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일반인에게 댐터를 개방하고 있다”며 “매번 신청을 받자마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전했다.

신청은 매주 월요일 영광원전 홈페이지(http://yk.khnp.co.kr)에서 가능하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장흥 ‘슬로우 월드’ 조성

### 20억 들여 행복마을·농촌체험마을 가꿔

#### 이달부터 본격 추진

장흥 ‘슬로우 월드’ 조성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장흥군은 장평면 우산리와 여농·장항·병동·월곡·운곡리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행복마을과 녹색 농촌체험마을 등 각종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다목적 회관 건립과 유기축산 공동축사 설치,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확충, 거주체험 시설과 산책로길 조성, 주민복지

프로그램 및 주민참여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산리 느린세상 지구는 한옥 보존 시범마을로 지정돼 한옥 15동이 신축공사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느린세상’을 주제로 하는 지역민 축제도 열 예정이다.

주민추진위원장 김병선(60)씨는 “지난해 12월 슬로우시티 국제연맹으로부터 슬로우시티 인증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을 특색있는 마을로 가꿔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농기구 수리반 운영

### 영암군, 200개 마을 순회 경운기·이앙기 등 정비

영암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200개마을을 돌며 경운기와 이앙기, 관리기, 양수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고장 원인 및 정비수리기술 등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1농가당 2만원까지 무상 수리되며, 순회 수리가 없는 날과 농한기(12~2월)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수리 교육장을 방문하면 된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희귀 한약재 ‘하수오’ 무단 채취 극성

### 완도 청산도, 외지인들 캐가 대책 시급

‘슬로 시티(Slow City)’ 지역으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에서 희귀 한약재인 ‘하수오(何首烏)’ 무단 채취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산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외지 댐터꾼들이 ‘하수오가

고가에 팔리는 한약재’라면서 일부 주민들을 부추겨 산과 도로변, 들녘 등에서 자생하고 있는 하수오를 마구잡이로 캐고 있다.

하수오를 채취하려면 1m 이상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채취 후 주변이 흉물스럽게 훼손되고 있다.

댐터꾼들과 지역주민들이 캔 하수오는 1kg에 15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사무소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이같은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관계 기관 등에 신고했는데도 특별한 단속·보호 조

치가 없다”며 “슬로우 시티 인증에 따라 청산도가 세계적인 자연생태 여행지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생태계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수오는 뿌리줄기가 땅속으로 뻗으면서 고구마같이 굵은 덩이뿌리가 맺히는 약용식물로 강장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산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돼 있어 지난해 12월 슬로우시티 국제연맹으로부터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국내 4곳 중 한 곳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장수온돌침대**

최고품질의 장수온돌침대

시원 4인식탁 ₩ 690,000 (최소현금)

하이파라하생용가구

모디쉬갤러리 통영주점

TEL. 055-252-3001~2

**모디쉬갤러리**

시원 4인식탁 ₩ 690,000 (최소현금)

모디쉬갤러리 통영주점

TEL. 055-252-3001~2